



국내자판기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손 병 철
삼성전자 과장

한국의 자판기 산업의 역사도 어언 만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자판기 산업을 처음 시작하던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자판기 민도는 낮았으며,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도 자판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일부 취객들은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 넣고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발로 차고, 간판을 부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 바뀌는 사이 자판기 매출액도 연간 1,500억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자판기 민도도 많이 높아져서 거리에서 자판기를 발로 차거나, 간판을 부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판기 누적 보급대수도 50만

대가 넘어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자판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생활의 한도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90년이후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힘입어 자판기 산업도 상당한 발전을 하였으며, 기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산전외에 4개 업체가 새로 참여함으로써 시장도 급팽창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수요증가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10%정도로 수요조정이 예상되나, 조정기가 끝나는 2000년이후 부터 또다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된 자판기 수량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아래의 표를 보면 생산추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강산이 2번 바뀌는 사이 자판기 매출액도 연간

1,700억을 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자판기 민도도 높아졌다.

자판기누적 생산 보급대수도 50만대가 넘어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자판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생활의 한도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체 생산 대수에서 커피, 음료(캔, 콜드컵등) 자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자판기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커피·음료 자판기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다양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88년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인한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국자판기 산업의 고성장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80년이전	81-85	86-90	91-93	94	95	96
커피자판기	수량	5,100	16,400	61,300	112,400	48,500	48,000	47,000
	금액	7,650	26,200	103,951	240,200	104,700	110,000	107,700
캔자판기	수량	600	2,500	22,100	41,300	19,300	18,000	18,000
	금액	1,500	5,250	46,666	110,738	51,630	50,000	50,000
콜드컵자판기	수량				300	300	400	400
	금액				1,800	1,800	2,400	2,400
담배자판기	수량	500	800	9,435	10,100	2,100	500	100
	금액	800	1,700	19,644	20,700	4,040	1,000	200
라면자판기	수량		400	1,400	1,500	1,500	300	300
	금액		960	2,960	3,470	3,228	810	810
기 타	수량		3,810	2,130	8,000	6,000	6,000	6,500
	금액		2,692	4,079	10,600	9,500	9,500	10,300
계	수량	6,200	23,910	96,365	173,600	77,700	73,200	72,300
	금액	9,950	36,802	177,300	387,508	174,898	173,710	171,410

* 자판기 협회자료 참조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산전외에 5개 업체가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이 사이클이 있듯이 94년 이후 부터 성장이 정체하게 되었으며, 자판기 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94년 7개 업체에서 현재 5개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계속하여 시장이 정체된다면 99년까지는 3~4개 업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99년까지는 갑작스런 수요증가는 없을 것이며, 매년 5~10% 정도로 수요 조정이 예상되고, 조정기가 끝나는 2000년 이후 부터 또다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커피·캔자판기 위주에

서 2000년 이후는 커피·캔자판기 수요는 감소하고, 대신 다품종 소량 판매 체제로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그때는 매년 20~30%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경의 시장규모는 500억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판매형태도 현재의 영업사원을 통한 방문 판매 위주에서 방문판매 비율은 줄어들고, 대신 매장을 통한 판매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벽들이 우뚝 서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에서 기술한 장미빛 청사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판기는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방문 판매하다 보니 일부 영업사원들이 자판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감언이설을 함으로서, 자판기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고, 그결과, 고객들에게 나쁜 인상만 심어주게 된다.

둘째는, 전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다.

현재는 커피, 캔 자판기를 취급하고 있지만, 커피·캔 자판기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빨리 품목을 다양화 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신규 품목을 도입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전문점에서 타품목을 취급할 자생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문점에서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2000년대가 되기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까지 자생력을 길러서 생존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는, 자판기를 수익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개선하여야 한다.

자판기를 통하여 운영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보급이 적게 되었을 때의 생각이며, 이제는 수익의 도구라고 하기보다는 자판기로 인하여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편익을 준다는 사고로 자판기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판기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판기 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직접 현장

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점주 및 영업사원들의 판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도영업을 지향토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직이 심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도 정도영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혹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영업의 질도 올리고, 이미지도 개선하여야 하겠다.

또한 전문점의 형태도 사무실만으로는 매출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영업사원을 통한 방문판매보다 매장을 통한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정도영업을 지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커피, 캔자판기의

다른 제품도 취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도 개선함으로써 전문적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점차로 개선해 나간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자판기 산업이 더욱 원숙한 단계에 접어들 것이고, 자판기도 우리의 생활에서 더욱더 밀착될 것이다.

나아가서 자판기 산업이 우리사회에서 기여하는 플러스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며, 자판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체 에서부터 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까지 자판기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불과 2~3년 밖에 남지않은 2000년대가 되면 자판기 산업은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CDMA핵심부품 본격 개발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장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CDMA(부호분할다중접속)용 핵심부품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이동통신핵심부품개발사업을 마련,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말기용안테나등 8개 부품개발에 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 가운데 이동전화단말기용 무선핵심부품개발은 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며 PCS(개인휴대통신)용 소형듀플렉서필터 등 7개과제는 전

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담당한다.

이와 별도로 정통부는 국책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CDMA핵심칩과 고주파용칩 등의 개발을 지원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은 독자적으로 CDMA핵심칩의 개발에 나서 빠르면 올해안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CDMA부품개발에 적극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방식의 이동전화를 상용화했으나 국내 부품산업이 낙후돼 국산화율이 시스템은 40%, 단말기는 30%로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개발대상부품 및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단위 억원). △PCS용 소형 듀플렉서필터(9) △PCS용 표면실장형 세라믹 결합기(7) △초소형광대역 전압제어발진기(10) △무선데이터통신 모듈 및 칩셋(18) △이동통신단말기용 리니어 어레이(18.5) △CDMA단말기용 안테나(10) △휴대단말기 충전지 보호용 박막서미스터(7.5) △셀룰러 단말기용 무선핵심부품(10)